

기독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성

성경말씀: 롬10:1-17

20번 읊기 강해, 고통의 의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누구신가? 위대하고 무한하심, 회개 기뻐하신다.

이렇게 강해를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구원과 성화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없다.

앞으로 몇 주 동안 기초를 다지려고 한다.

목사의 고민: 본인에게 맡겨진 양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성장하게 하고 있는가? 아이들은?

현시대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절대적 진리는 없다. 다원주의

즉 기독교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믿음 말고도 구원의 다른 방법이 있다.

미국의 경우 100년 전 복음주의자들의 믿음: 절대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현시대 50% 정도가 다른 방법이 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시대, 신학의 무력화, 종교 통합, 다원주의
결국은 기독교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믿음 말고도 구원의 다른 방법이 있다는 주장이 득세
왜 그런가? 진리는 쓰고 비진리는 입에 달기 때문이다. 따라 가게 되어 있다. < >

로마서 10장에 나타난 이상한 현상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서신서, 성경에서 구원과 성화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책

사도 바울이 보려 주려는 것: 롬1:16-17

1-8장에서 그는 온 세상이 죄 아래 있다. 모두 죄인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9-1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나선 자기를 보면 자기 민족 유대인들의 문제 지적, 이들의 미래
어찌나 그들을 사랑했던지 자기 자신의 저주까지도 이야기함(9:1-3).

유대인은 누구인가? (9:4-5). 시내 산에서 약속을 맺고 하나님의 아내가 된 자들(출19:5-6)

유대인의 장점(롬3:1-2)

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담은 기록을 기록하고 간수하고 메시아를 내었다.

문제(10:1):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다 안다고 하고 특히 성경이 주어지고 메시아가 그들에게서 나고 12사도와 사도 바울이 다 유대인
참으로 쇼킹한 일이다.

그들의 문제(2):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랑이 많다. 참 하나님을 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모세와 엘리야가 대언자

지금 같으면 1948년 5월 14일 독립, 대사관 이전, 우리 힘으로 다 된다. 동성애자들 천국

그러면 어떤 지식이 없는가?(2), 하나님의 의(義)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 행위로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 의는 무엇인가?(4),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그리스도라는 의이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그 의는 율법의 끝마침이다. 구약의 끝마침,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윗, 솔로몬 다 유명하고 존귀하나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소크라테스, 부처, 마리아, 무함마드, 트럼프, 푸틴,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재물, 명예, 학식, 가문, 수명 No!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 의로 여기신다(고후5:7). 여기서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

모세의 율법의 의: 행하면 산다(5). 다 행하는 사람이 없다.

그 결과 하늘까지 가려 하고 깊은 속으로 내려 가려 한다(6-7). 어떻게든 행위로 해 보려고

유대인들의 생각과 달리 그 의는 멀리 있지 않다(8). 매우 가까이 있다. 이 성경에 들어 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9-10)

오직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11).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구원자로 인정해야 한다(13).

구원은 기독교를 통해서만, 기독교의 복음을 통해서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서만

고전15:1-5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17, 14-15)

들어야 한다. 들으려면 복음 선포자가 있어야 한다. 선포자는 하나님이 보내야 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다(15).

이 교회와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 바로 이것을 위해,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알려야 한다.

무엇을: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모든 수단이 거의 다 막혀 있다. 최선을 다해 미디어 선교를 하고 있다.

기독교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성

다시 이야기한다. 적그리스도의 세상, 기독교의 근간이 무너진다. 그 근간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본성 참여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 이단, 속히 벗어나야 한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완전한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도. 남 이야기가 아니다.

교회 오랜 다닌 사람, 그 집 아이들

20-21세기의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이야기(1918년 11월 7일, 2018년 2월 21일)

근 60년 동안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전도 집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함(25억 명)

한국에도 와서 엑스플로 73, 3일 동안 300만 명

그런데 천주교와 손을 잡기 시작하면서 교황을 만나면서 메시지가 변질되기 시작함

만 79세. 1997년 5월 31일, 빌리 그레함과 로버트 솔리의 대화, Billy Graham Denies Christ
솔리 : 박사님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엄 : 모두가 알다시피,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은 전 세계의 크리스천 그룹뿐만이 아니고 크리스천 그룹이 아닌 자들로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거나 안다면, 그 사실을 의식적으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입니다. 나는 온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 큰 부흥이 조만간 일어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사도행전에서 말했듯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이슬람 세계에서나, 불교도 세계에서나, 기독교 세계에서나, 혹은 믿지 않는 세계에서 백성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으므로, 이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입니다. 물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마음속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으나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 있음을 알며, 자기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빛으로 돌아서려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리 : 뭐라고요? 지금 박사님께서 어떤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태어나서 전혀 성경을 접해 본 적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혼과 삶에 들어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까?

그레이엄 :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야생 상태로 거하고 있는 종족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들은 단 한 번도 성경을 보지도 못했고, 성경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으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의 사람들과는 다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리 :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흥분이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는 넓은 것이군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롬10:2-3,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절대 진리는 다 배타적이다

수학적 진리: 2*3=6

지리학적 진리: 인천은 북위 37도 27분 22.521초, 경도 126도 42분 18.742초

역사적 진리: 대한민국의 제1대 국회는 제헌 국회,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국회를 뜻하며 1948년 5월 31일 구성되고 1950년 5월 30일까지 활동한 국회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한 국회이다.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정 공포, 8월 15일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체제, 반 공산주의 국시의 대한민국 건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전 세계 국가들의 인정,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리

영적 진리: 당연히 가장 배타적이다. 불교, 이슬람, 천주교 등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누군가를 믿고 경배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무신론자, 종교는 없다고 해도 다 실은 자기를 믿는 것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 창조자와 창조물, 창조자는 당연히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

절대적 진리

그런데 그 한 하나님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인격체가 되어야 하므로 삼위일체, 즉 세 인격체로 구성된 한 하나님. 이것 이 외에는 다 가짜다.

그러므로 창조자가 아닌 창조물을 숭배하면 구원 없다. 더욱이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행위를 더해 구원받으려고 하면 구원 없다.

수학적 진리, 지리학적인 진리, 역사적 진리 다 배타적이지만 모른다고 하거나 왜곡된 것을 믿어도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영적 진리는 다르다: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들어 있는 몸이다. 사람은 몸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불멸의 혼이다. 이 혼은 영원히 산다.

그러므로 혼을 지옥으로 넣는 거짓을 믿으면 안 된다. 영원히 지옥 행

길은 오직 하나이다(요14:6). 기독교의 배타성, 진리는 오직 하나, 구원의 길도 오직 하나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행4:12).

구원 받았는가?

구원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 속에 선함이 없음을 알고 괴로워해야 한다. 그래야 회개와 믿음의 길이 열린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것이다. 우리의 창조자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분이 다 해 놓은 신 것 즉 십자가 구속 사역을 믿어야 한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해야 한다.

그분만이 우리의 죽을 몸을 부활시킬 분인 줄 믿어야 한다(롬10:9-10).

여러분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는가?

확실히 구원받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은혜로